

2021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--
성경의 핵심

메시지 4

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됨

성경: 롬 6:3-6, 고전 1:30 상, 갈 2:20, 엡 2:5-6, 요 15:1, 4-5

- I. “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.” — 롬 6:3.
- A.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, 우리와 그리스도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한다 — 롬 6:3.
 - B.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,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 — 갈 3:27, 골 2:12-13.
 - C.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영역 안에서 출생했다(고전 15:45, 47). 그러나 침례를 통하여 둘째 사람(고전 15:47), 그리스도(고전 1:30, 갈 3:27)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.
 - D.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 — 롬 6:3-4 상.
 - 1.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없다.
 - 2.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, 우리의 타고난 생명, 옛 본성, 자아, 육체,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 — 롬 6:6, 갈 2:20, 5:24.
 - 3.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는 오직 그분,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다 — 요 20:25-29, 고전 15:3-4, 빌 3:10-11.
 - E.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.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고 침례를 통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— 롬 6:4 상, 6 상.
- II. “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,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” — 롬 6:4 하.
- A.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다.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— 골 2:12, 엡 2:5, 롬 6:4.
 - B.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— 롬 6:4, 5:17.
 - C. 생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서 5 장 10 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5 장 17 절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6 장 4 절은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선포한다.
 - D.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.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하다 — 고후 5:17, 빌 3:10-11.
 - E. 생명의 새로움은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 주시는 영과 긴밀히 연관된다. 그 영께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길이다 — 고전 15:45 하.
 - F.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생활이다 — 롬 8:29.
- III. “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,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.” — 롬 6:5.
- A. 이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,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성장이 발생한다 — 고전 6:17.
 - B.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.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— 고전 1:30, 6:17.
 - C.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 — 롬 11:17-24.

1. 접붙이는 것은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, 두 생명이 연합된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— 요 15:1, 4-5, 9-11.
 2.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,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들을 부활시키며,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,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— 롬 12:2.
 3.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시기 위해 그분은 육체되심, 십자가에 못박히심,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 했다 — 요 1:14, 갈 3:1, 행 2:24, 요 20:9, 고전 15:4, 45.
 4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야 한다.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며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산다 — 고전 6:17, 요 15:1, 4-5.
- D.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이 생명의 새로움이다 — 롬 6:4-5.
1. 5 절에서 ‘부활’이라는 단어는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성장의 과정을 가리킨다.
 2.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랐다.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고 있다 — 롬 6:5.
 3.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과 똑같이,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만 발견된다. 그분이 부활이시다 — 요 11:25.
 4.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 안에서 그분과 함께, 그분 안에서 계속 자란다. 이것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— 롬 6:4-5.

IV. “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,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” — 롬 6:6 상.

- A. “알고 있는”은 사실상 영적인 이상 안에 있는 어떤 사실을 보는 것이다 — 롬 6:6 상.
1.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기초하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상으로부터 온다.
 2. 우리는 로마서 6 장 6 절과 7 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고 8 절부터 10 절까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.
 3. 우리는 로마서 6 장에 계시된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분명한 이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.
- B. 로마서 5 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인들로 조성되었다. 로마서 6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었다.
1.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— 고전 1:30.
 2. 그리스도와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이 통과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된다 — 갈 2:20, 엡 2:5-6.
 - a.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며 그리스도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이다. 그리스도를 떠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— 롬 6:6.
 - b.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셨고,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,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셨다고 말한다 — 갈 2:20, 엡 2:5-6.
 - c.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된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체험하셨다 — 롬 6:3-6.
 - (1) 우리가 가진 것은 그분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— 고전 1:30.
 - (2)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.
 - (3)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믿는 이들에게 개별적인 체험을 주시지 않는다. 우리가 가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 안으로 다만 들어가는 것뿐이다 — 고전 1:30, 엡 2:5-6.
 - d.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 안으로, 그분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체험이 되고 그분의 체험은 우리의 역사가 된다.
 - e.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때 시작된다 — 갈 2:20.